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8期(2025.12.12) WWW.MINGHUI.ORG

한글판 1032호 minghui.or.kr



▲ 12월 6일, 북캘리포니아 제69회 로스가토스시 ‘어린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Los Gatos)’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시 초청을 받아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관중과 시의원의 환영을 받았다.

## 주요내용

【해외종합】 ‘국제 인권의 날’ 맞아 英 정계인사들 파룬궁 성원

【해외종합】 다큐멘터리 《폭로의 시대》 공개, 외계인 진실이 대중의 시야로

【수련교류】 사악한 불법 기소에 직면했을 때의 한 가지 잘못된 인식

【시사평론】 왜 중국인은 납치됐다고 말하는가?

## 〈목차〉

### ■ 해외종합

‘국제 인권의 날’ 맞아 英 정계인사들 파룬궁 성원 .....	3
다큐멘터리 《폭로의 시대》 공개, 외계인 진실이 대중의 시야로 ...	5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9
진선인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 .....	17

###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21
---------------------------------	----

### ■ 수련교류

사악한 불법 기소에 직면했을 때의 한 가지 잘못된 인식 .....	26
진상 알리기 중 어투, 선한 마음과 도리가 마음을 변화시킨 사례 ...	30
‘610’ 두목의 변화 .....	34
기술포럼 자료실의 ‘자료제작’ 페이지 업데이트 .....	39

### ■ 시사평론

미·영·호주 등 15개국 연합성명을 읽고 든 생각 .....	40
왜 중국인은 납치됐다고 말하는가? .....	43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인권의 날’ 맞아 英 정계인사들 파룬궁 성원

글/ 영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2025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전야에 영국 정계인사들이 서한을 보내, 26년간 박해를 겪으면서도 신념을 굳건히 지킨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송고한 경의와 확고한 지지를 표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자 대상 박해에 대해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전개해, 수감된 양심수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중국공산당(중공)의 이런 반인류 범죄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영국 정계인사들이 파룬궁수련자를 성원해 보낸 서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제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 for International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의장 짐 새넌 의원(Jim Shannon MP):

저는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겪는 조직적인 박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2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파룬궁수련자들은 날로 엄밀해지는 대규모 감시, 고문, 임의 구금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폭로한 믿을 만한 보고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수감자의 심장, 신장, 간 등 주요 장기가 강제로 적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중

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심지어 법률의 비호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파룬궁수련자는 구금 기간에 강제로 채혈 검사와 각종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구금 센터는 사실상 ‘생체 장기은행’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중공 당국에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즉 파룬궁수련자를 더욱 탄압하는 동시에 장기 공급원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이식 대기 시간을 극도로 단축한 것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는 소수민족과 종교집단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광범위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여전히 이 끔찍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 이런 노골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시길 간청합니다! 우리는 중공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장기이식 준칙을 수호해야 하며, 중국에서 발생하는 파룬궁수련자 대상 범죄에 대해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전개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수감된 양심수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는 또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경을 초월한 탄압 행위가 충분한 중시와 조사, 추궁을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 파룬궁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목소리로 외쳐 이 박해를 철저히 종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래녹의 피어슨 경(Lord Pearson of Rannoch):

파룬궁(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 큰 영광이며, 특히 당대 거대한 악의 세력인 중공에 맞서는 그들의 항쟁을 지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축원을 보냅니다.

버터셋의 루스 리스트 여남작(Baroness (Ruth) Lister of Burtersett):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이 날로 심각한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파룬궁이 전하는 자비와 관용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주십시오.

## 다큐멘터리 《폭로의 시대》 공개, 외계인 진실이 대중의 시야로

[명혜망](뉴욕 지국) 《폭로의 시대》(The Age of Disclosure)는 2025년에 개봉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로, 댄 패러가 감독했으며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제)에서 첫 공개됐다. 이 영화는 미국 정부, 군,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 34명을 인터뷰했다. 여기에는 전 국방부 정보관 루이스 엘리전도, 전 국방부 고위관료 크리스토퍼 멜론, 전 UAP(미확인 이상 현상) 태스크포스 책임자 제이 스트래튼 등이 포함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영화·예술·문화 축제인 SXSW는 전 세

계 전문가들과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며, 봄철 가장 인기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힌다.

《폭로의 시대》에 출연한 인물들은 증언을 통해 ‘80년에 걸친 전 세계적 은폐 활동’을 폭로한다. 그 핵심은 비인간 지적 생명체(즉 외계 문명)의 존재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 및 위협이다. 다큐는 이것이 추측이 아니라 기밀 프로젝트 관련자의 직접 증언에 기반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대중의 감시와 의회의 공개를 촉구한다. 이는 인류가 “마땅히 알아야 할”, “시급한 진실”이라고 영화는 전한다.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인류에게 “우리는 우주에서 고립된 종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장기적인 은폐가 세계 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개된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비인간 지적 생명체의 확인: 외계 문명은 수십 년 동안 지구와 접촉해 왔다. 미국 정부는 1947년(로즈웰 사건)부터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비인간 비행체(UAP)와 생물학적 유해를 회수했다.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의 기술을 초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공간 왜곡’[예: 거품(시공간의 보호막) 속 이동]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기존 물리 법칙(예: 음속의 10배로 순간 가속하거나 8만 피트 수직 하강)을 초월할 수 있다.

(2) 80년간의 정부 은폐 행동: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수십 년 동안 ‘비밀 UAP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UAP 증거를 조사하고 은폐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예: ‘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은폐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위조 작전’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대중의 공황과 사회적 불안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지만 목격자들을 ‘미치광이’로 낙인찍는 등 심리적 조작도 포함돼 있었다.

(3)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계 기술을 역설계하려 비밀리에 경쟁하고 있다. 이는 ‘맨해튼 프로젝트 강화 버전’에 비유될 수 있다. 이를 먼저 해독하는 쪽이 향후 몇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회수된 기술들은 현대 항공우주 및 엔지니어링 혁신에 스며들었지만 세부 사항은 극비다.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 2004년 ‘틱택(Tic Tac)’ UFO 사건: 미군은 날개가 없고 배기가스가 없는 물체가 극한 속도로 기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의회 청문회는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전직 정보 장교 데이비드 그루시의 증언을 통해 미국이 ‘비인간적 기원의 비행체와 생물학적 유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폭로의 시대》는 선명한 고화질 영상과 풍부한 시각 자료(B-롤)를 사용하여 수준 높게 만들어졌다. 로튼 토마토는 비평적 호평 30%, 관객 지지율 93%를 기록했다. 《폭로의 시대》는 선정적인 스토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해야 할 현실’을 제시한다. 인류는 외계인과 접촉이 이뤄졌고 은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1999년 2월로 되돌려 보자.

리홍쯔(李洪志) 대사는 《미국서부법회 설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학은,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외계인이 사람에게 강요한 것이며 이미 사회 전반에 관통되어 있고 여러 면이 모두 이것에 관통되어 있다.”

“인류의 생존조건이 바뀔에 따라 사람의 행위에 변화가 생기고, 인류의 모든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학 이외의 문화를, 각 민족의 문화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999년 5월, 리홍쯔 대사는 《캐나다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인류의 과학은 사실상 바로 외계인이 가져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외계인을 연구하고 외계인의 무슨 신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바로 당신 신변에 있고 그것은 다만 당신과 접촉하지 않을 뿐이며 아울러 그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

1998년 5월, 리홍쯔 대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스위스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우선 외계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좀 말하겠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 지구가 이 우주 중에서 생명이 있는 유일한 성구(星球)는 아니며 지구도 이 한 차례만이 아니다.”

당시 이 주제는 법회에 참석한 두 명의 제자가 던진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리홍쯔 대사는 매우 드물게 시간을 할애해 우주에서 외계인이 형성된 역사, 외계인이 지구에 온 진정한 목적, 그들이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었던 깊은 원인을 설명하셨다. 또한 그 설법에서 리홍쯔 대사는 신불(神佛)은 외계인이 인간을 대체



하거나 제거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히셨다.

진실을 이해하려면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도덕성과 이성,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2025년 봄 《폭로의 시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정부와 주류 언론이 추진해 왔던 ‘80년 은폐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UFO 목격자에 대한 낙인찍기, 외계인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난, 외계인 관련 정보를 ‘음모론’이라고 몰아가는 허위 선전은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말할 용기,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면서 점차 바른 힘에 의해 격파되고 있다.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1월 21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팔라우, 파라과이,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등 15개 유엔 회원국이 중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합성명 (Joint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을 발표해,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기독교인, 티베트족, 파룬궁수련자 등 집단을 겨냥한 중공의 박해를 규탄했다. 성명은 또 각 회원국에 유의미한 책임 추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정당한 통치와 국제적 신뢰의 초석이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유

엔을 통해 활동하는 회원국들이 중국에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유의미한 책임 추궁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한다. 해당 성명은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 마이크 월츠(Mike Waltz)가 대표로 낭독했으며, 중국의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다자적 행동으로, 중국 정부가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의 추진을 호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가 202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인권 의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었다. 유럽평의회의 핵심축은 ‘유럽인권 협약’과 그 이행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다. 협약 체결국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개인이 특정 체결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12월 4일,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에서 온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유럽평의회 건물 앞과 스트라스부르 기차역 광장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진행했다. 그들은 각계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 전단을 배포해 중국 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폭로했다. 사람들은 진상을 알게 된 뒤 파룬궁수련자들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잇달아 표했다.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은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파룬궁수련자에게 “중공은 매우 사악합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힘내세요!”라고 했다. 모리스(Maurice)는 프랑스 철도회사 직원으로, G7+7 생체 장기적출 반대 청원서에 서명한 뒤 “우리는 모두 인간성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야지 서로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박해는 애초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어찌 됐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어떤 곳에서 와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인종 차별도 하지 말고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과 제가 만난 것처럼 이것이 행복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라고 밝혔다.

12월 4일,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국유장기(國有臟器)》가 영국 런던 퀸 메리 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에서 상영됐다. 영화가 끝난 후 대학생 다수가 인터뷰에 응해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성찰을 표했으며, 자발적으로 런던 현지의 파룬궁 공법교습 장소를 문의하고 파룬궁 수련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상영관 안의 대학생 몇 명은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영상이 보여준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박해를 이렇게 직접 접한 것과 파룬궁수련자의 선량함과 확고함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대생 안누슈카(Anushka)는 이전에 중공의 인권 유린에 관한 보도를 들은 적이 있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나쁜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녀는 신앙인에 대한 탄압과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영상을 본 것이 처음이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가 단지 가부좌하고 연공하며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인데 학대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느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알아야지 계속 발생하게 되서는 안 돼요. 이걸 정말 받아들이 수 없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12월 6일, 미국 북캘리포니아 제69회 로스가토스시 ‘어린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Los Gatos Children’s Christmas / Holidays Parade)’가 이날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는 다시 초청을 받아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관중과 시의원의 환영을 받았다. 로스가토스 시의원 마리아 리스토(Maria Ristow)는 남편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리스토는 파룬궁수련자 대열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로스가토스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이 지역의 모든 단체가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며, 특히 무용과 악곡을 연주하는 팀은 더욱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팀이 퍼레이드에 참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스토 의원은 말했다. “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원칙이 매우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로스가토스시 주민 에일린 (Eileen) 과 딸은 모두 파룬궁수련자 대열을 아주 좋아했다. 에일린은 말했다. “파룬궁수련자 대열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연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매우 웅장합니다. 저는 ‘진선인’을 좋아하는데 이 원칙은 아주 위대합니다.”

1월 27일 추수감사절, 뉴욕 맨해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연례 축제를 맞이해 수백만 시민이 맨해튼 미드타운으로 몰려들었다. 이날 일부 뉴욕 파룬궁수련자들도 퍼레이드의 종착지이자 맨해튼의 유명 교통 허브인 펜실베이니아역(Penn Station)에 나와 연공 시연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 이날 각지에서 온 시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독일에서 잠시 방문 온 청년 파룬궁수련자 한나 부이(Hannah Bui)도 이날 연공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이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부이는 “우리 연공 시연이 많은 행인의 관심을 끌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저희를 따라 동작을 배운 분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주말,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이 피커링(Pickering), 에이젝스(Ajax), 마컴(Markham), 볼턴(Bolton), 스토우빌(Stouffville) 등 온타리오주 인근 5개 도시의 성탄 퍼레이드에 잇달아 참가해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각 지역 시민들은 천국악단의 연주를 환영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거나 춤을 추는 사람,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시민도 있었고, 파룬궁이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뒤 현장에서 함께 동작을 따라 하며 배우기 시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에이젝스 지역 부동산 업계 종사자인 캐럴(Carol)은 “진선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치이고, 저는 전 세계가 이 가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11월 28일 금요일 저녁, 서호주 남서해안 도시 만두라(Mandurah)에서 성대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 퍼레이드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의 퍼레이드 대열이 주목을 받았다. 관중은 “당신들이 최고예요!”라고 찬사를 보냈다. 12월 2일, 만두라 시장 앰버 컨스(Amber Kearns)는 파룬따파 학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 파룬궁수련자들이 지역사회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의 퍼레이드 팀은 선녀팀, 요고(腰鼓)팀, 용춤팀을 포함했다. 도로변에 늘어선 수많은 관중이 파룬궁수련자들의 공연에 환호하고 갈채를 보냈으며, 사람들은

잇달아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음악과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밝고 아름다운 색채와 평화로운 에너지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관중 제인(Jane)은 교사로,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칙에 깊이 공감하며 “세상은 절대적으로 진선인이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의 퍼레이드 행렬이 주는 느낌이 “즐겁고 밝아요”라고 표현했다.

11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파룬궁수련자들이 스웨덴 국회의사당 옆 ‘동전광장’에서 파룬궁 공법 시연, 진상 알리기, 박해 반대 서명 활동을 개최했다. 많은 시민이 진상을 알게 된 후 앞다퉂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의 평화롭고 이성적인 용기에 감탄했다. 적지 않은 중국 관광객도 와서 진상을 알게 됐는데, 그중 어떤 이는 현장에서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선택했다. 한 젊은 여성은 전시판을 보고 사진을 찍은 뒤 자발적으로 수련자와 대화를 나눴다. 자신은 중국 남방에서 왔으며, 평소 인터넷 우회접속(VPN)으로 뉴스를 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 특히 그 천안문 ‘분신’ 조작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장에서 그녀는 수련자가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 출로 폭리를 취하는 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했다. “저는 공산당이 바로 사람을 해치러 왔다는 걸 알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온종일 사람들을 속이고 미국을 증오하고 일본을 증오하도록 선동하며 국민에게 애국과 애당을 강요하지만, 사실 고위 관리들은 진작 돈과 자녀를 모두 해외로 빼돌렸어요.” 그녀는 말했다. “더 밍살스러운 건, 지금 중국인이 고위 관리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장기를 적출당하는 ‘인광(人鑛, 사



람 광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악마예요! 지금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그들(중공)을 증오하고 그것이 빨리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탈당 사이트에서 이미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중공 당·단·대 조직을 탈퇴해 평안을 지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실명으로 탈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녀는 수련자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바로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했다. “돌아가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진상)를 알려서 그들도 다 탈퇴하게 할 거예요!” 그녀는 또 말했다. “정말 운이 좋아요. 스웨덴 국회 옆에서 파룬궁을 만나다니 시야가 넓어졌어요!”

11월 29일, 네덜란드 순회 진상 팀이 렐리스타드(Lelystad)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했다. 많은 시민이 대법 진상을 알게 됐고, 파룬궁수련자들의 반(反)박해를 지지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리스(Rees)는 파룬궁수련자들의 행사를 매우 지지하며 박해 반대 서명부에 서명했고, 수련자들을 자신의 가게로 초대해 휴식을 취하게 했다. 로헨(Rohen)과 아메라(Amera)는 연인 사이로, 진상 전시판을 지나다 그 위의 정보를 읽고 두 사람 모두 서명했다. 로헨은 말했다. “저는 이것(고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아메라는 말했다. “이런 행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 이런 (고문) 범죄를 제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1일, 스페인 파룬궁수련자들이 테네리페섬(Tenerife) 칸델라리아 광장(Plaza de Candelaria)에서 진상을 알리고 박해 반대 서명을 받는 행사를 개최해 현지 주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받았다. 관광객과 현지 주민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전시판을 보고 진상 전단지를 읽은 후 이 박해를 이해할 수 없어 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 분개, 의혹과 불안이 나타났고 잇달아 수련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전시판을 읽었고, 휴대폰으로 전시판 내용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명 테이블로 와서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며 박해를 반대했고 박해를 제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희망했다.

11월의 독일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들었다. 독일의 파룬궁수련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쾰른 대성당 광장에서 행사를 열어 현지 시민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전했다. 많은 관광객이 진상을 파악한 뒤 파룬궁 박해를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11월 30일 독일 여성 리사(Lisa)는 진선인의 바른 에너지에 끌려 떠나고 싶지 않았다. 리사는 심리학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광장에 들어선 순간, 파룬궁수련자가 연공할 때 발산되는 온화한 에너지장을 민감하게 느꼈다. 그녀는 혼잡한 환경이 수련자의 연공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녀의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에서는 고요한 힘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 에너지의 평온함을 느꼈고 떠나고 싶지 않았으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동작을 따라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흘러나올 뻔했어요.” 리사는 파룬궁수련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찬사를 보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곳의 모든 사람과 사회 전체에 이롭고 의미가 있어요. 중국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 사람들 역시 진(眞)에서, 선(善)에서 벗어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우리는 이 이념을 기억해 자신을 충

실히 채워가야 해요.”

12월 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2025년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개최됐다. 현장에서는 총 14명의 수련자가 단상에 올라 소중한 수련 체험을 교류했고, 회장에서는 중국어, 핀란드어, 영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해 언어 배경이 서로 다른 수련자가 경청하고 혜택을 얻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 수련자들은 법공부를 중시한 후 어떻게 난관을 돌파했는지 교류했고, 어떤 이는 갈등 속에서 안으로 찾으며 자신을 수련한 것을 공유했으며, 또 어떤 수련자는 업무와 생활, 대법 프로젝트 중에서 어떻게 진선인 원칙을 따르고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았는지, 그리고 각종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인연 있는 사람에게 대법 진상을 알린 일을 이야기했다.

## 진선인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

[명혜망](더룬 기자) 2025년 여름, 풍경이 우아한 루아르성 알레레 성에서 프랑스 명혜학교는 프랑스, 유럽 각국 및 대만에서 온 50여 명의 어린 수련자들을 맞이했다. 나이는 3세부터 20세까지 다양했다. 10여 일의 캠프 기간 아이들은 법공부, 연공과 풍부한 활동 속에서 심성 제고의 즐거움을 체험했고, 동료와의 어울림 속에서 소중한 성장을 얻었다.

### 수련 환경 속에서의 배움과 성찰

캠프는 매일 단체 법공부와 연공을 안배했다. 청소년과 성인 수련자는 다국어 법공부에 참여했고, 어린아이들은 학부모와 보조

교사의 동반하에 연령에 맞는 과정을 진행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일지라도 조용히 연장자 수련자가 법을 읽는 것을 경청했다.

순수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점차 진선인(眞·善·忍)의 일부 내포를 체득했고, 평소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많은 심성 문제도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 개선됐다.

## 어울림 속에서 선(善)과 관용을 깨닫다

11세 월은 학교에서 서로 놀리는 습관 때문에 무심코 다른 어린 수련자 8세 앙드레에게 상처를 줬다. 보조 교사는 ‘전법륜(轉法輪)’ 중의 ‘읽음과 얻음’에 관한 법리에 근거해 두 사람이 소통하도록 이끌었다. 월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앙드레도 기꺼이 용서했다. 두 아이의 마음은 교류 속에서 더욱 부드러워졌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더 잘 알게 됐다.

9세 막심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걸어 나와, 학부모의 일깨움 하에 충돌을 겪더라도 선의를 유지해야 함을 알게 됐다. 며칠 후 그는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교류했고, 눈빛은 회피하던 데서 자신감 있게 변했으며, 말투는 방어적인 데서 우호적으로 변했다.

이런 변화는 비록 작지만 아이에게는 진정한 성장이었다.

## 청소년 수련자의 자아 돌파

청소년 팀 수련자들도 마찬가지로 심성 제고를 경험했다.

20세 다니엘은 자신이 ‘부모에게 떠밀려 하는 수련’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수련’으로 변화한 것을 공유했다. 그는 수련을 멀리하려 했을 때 오히려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꼈고, 결국 확고하게 수련의 길로 돌아오게 됐다.

13세 오귀스탱은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문득 깨달았다. “저도 누나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더욱 선(善)으로 어린 남동생들을 대해야 해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했다.

22세 보르나는 수련이 내면에서 만족을 찾게 하고 더는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게 함을 체험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진선인이 가져다주는 힘을 보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마투스는 게임에 대한 집착을 돌파했고, 조용히 자신을 마주하고 안으로 찾아야만 진정으로 제고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 마음을 더 넓게, 길을 더 밝게

17세 아폴린은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곤경에 직면했을 때 수련인의 관용과 선의로 문제를 대하는 것을 배웠고, 각자 모두 다른 처지에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는데, 이런 성숙함은 캠프가 매년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선물이다.

23세 로빈은 심리적 장애로 하마터면 참가를 포기할 뻔했지만 결국 장애를 돌파하고 캠프에 왔다. 그는 캠프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수련자 친구들이 주는 힘과 따뜻함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 법회와 같은 교류, 성장의 발걸음을 증명하다

햇살이 화창한 아침, 아이들은 성 정원에서 진지하게 소감문을 작성했고 전체 캠프 참가자 앞에서 정중하게 발표했다. 나이 든 청년이든 어린이 수련자든 모두 공경하고 평온한 태도로 경청하고 발표했다.

이런 교류 속에서 아이들은 집착을 논하고, 선한 마음을 논하

며, 선택을 논하고, 책임을 논했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는 성장의 가장 진실한 증거였다.

10여 일의 여름 캠프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 중에서 새로운 제고를 얻게 했다. 그들은 안으로 찾는 것을 배웠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웠으며, 갈등 속에서 순진함과 선량함을 유지하는 것도 배웠다.

13세 레오는 소감 발표에서 “수련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집착을 내려놓고 심성을 제고해 진선인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 말은 올해 명혜학교 활동을 나타내는 가장 따뜻한 설명이 됐다.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충칭시 주룽포구 양자핑 파룬궁수련자 황위빈(黃渝彬)과 탄핑(譚萍)이 2023년 3월 경찰에게 납치된 후 소식이 전무했다. 최근야 두 사람이 불법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소식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중공) 현지 법원은 황위빈이 진상 지폐 1만 위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 4개월을, 탄핑이 슈퍼마켓에서 진상 지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불법 선고했다.

충칭시 베이베이구 74세 파룬궁수련자 류판친(劉范欽·여)은 2025년 4월 27일 차오양 파출소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다. 같은 해 11월 12일, 그녀는 충칭시 장베이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11월 29일경 2년 6개월 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2003년 6월, 류판친은 충칭대 대학원생 웨이싱옌(魏星艷, 파룬궁수련자) 강간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납치돼 다두커우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라천다오카오(拉抻吊拷-팔을 짓혀 매다는 고문)’ 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양팔이 박해로 장애가 됐으며, 이후 9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아 충칭 여자감옥에 갇혔다.

충칭시 창서우구 파룬궁수련자 쟁원후이(曾雲輝)는 충칭 주룽포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바이수전(白書珍)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수련자 류춘산(劉春山·남·45세)은 안후이성 푸양 타이허

현 사람으로 허페이에서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23년 9월 20일, 류춘산은 허페이 빈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된 후 허페이 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5년 5월 20일, 류춘산은 수산 법원에서 7년 10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왕홍핑은 불법적으로 2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산시성 한중시 멘현 파룬궁수련자 두수후이(杜淑惠·75세)는 2023년 12월 7일 집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으로 한타이 구치소에 감금돼 누명을 썼다. 2025년 1월 10일, 그녀는 멘현 법원에서 불법 징역 4년형에 벌금 6000위안을 선고받았다. 10년 전, 2013년 9월 26일 저녁, 두수후이는 멘현 공안국 국보 대대 후진젠(胡軍建) 등 경찰에게 집에 침입해 납치당하고 누명을 써 멘현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둥 포산시 66세인 파룬궁수련자 차이시(蔡曦)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포산시 공검법(공안·검찰·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5년 3월 18일, 찬청구 쭈마오 파출소 경찰이 집에 침입해 차이시를 납치해 포산 찬청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가족은 법원 재판 소식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66세인 차이시가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창춘시 파룬궁수련자 자오젠(趙健)은 창춘 TV 진상 영상 송출 사건에 참여해 중공에게 10년간 불법 감금당하고 온갖 고문을 겪었다. 자오젠은 출옥 후 장쩌민(江澤氏)을 고소해 또 10일간 불법 감금됐고, 이후 계속 불법 감시를 당했으며 끊임없이 위협과 괴롭힘을 당했다. 한 차례 중공 요원이 그녀를 납치하려 했을 때

자오젠은 직장에서 바로 퇴직하고 8년에 달하는 유랑생활을 시작했다. 범죄자들은 계속 그녀를 찾았고 자오젠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겪다가 2025년 12월 1일 향년 58세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랴오닝** 진저우 링하이시 65세 파룬궁수련자 푸원제(付文傑)는 2025년 6월 2일,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 및 모함을 당했고, 11월 10일 링하이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12월 4일 억울하게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링하이시 법원 박해 관련자: 재판장 두원팡(杜文放), 배심원 화리(華麗)·류리나(劉麗娜), 법관 보조 가오텐이(高天一), 서기 스테(史鐵).

**랴오닝** 선양시 68세 파룬궁수련자 왕수화(王淑華)는 2025년 11월 19일 다둥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둥구 법원은 판결문을 내고 왕수화에게 억울하게 징역 4년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했다. 왕수화는 법에 따라 항소해 항소인 무죄 판결, 항소인에 대한 국가 배상, 사건 담당자의 위법 범죄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왕수화는 퇴직 전 창투현 다싱중학교 정교(政教) 주임, 교학 부교장 등의 직무를 20년 연속 역임했다. 그녀는 직업을 사랑하고 성실히 일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실적이 뛰어났다. 그녀는 여러 명예와 상을 받았다. 1998년 5월, 왕수화는 인연이 닿아 파룬따파를 수련하게 됐고, 연공한 지 얼마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신체 각종 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간염도 치료 없이 치유됐다. 왕수화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부교장 직무를 면직당하고 연구원 일을 했다. 2002년에는 불법 강제

노동 3년 처분을 받고 악명 높은 라오닝성 마싼자(馬三家) 노동 수용소로 납치됐다. 2025년 8월 23일, 왕수화가 행인 류핑칭(劉鳳淸)에게 진실한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류핑칭에게 쫓겨 다니며 구타당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선허 공안분국은 경찰을 출동해 왕수화를 납치하고 가택을 수색하고 모함했다.

라오닝성 라오양현에 거주하는 76세 파룬궁수련자 쉬펑천(徐增臣)은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30일, 집으로 들이닥친 바후이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금됐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쉬펑천은 덩타시 법원에서 다시 징역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이는 쉬펑천이 두 번째로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쉬펑천은 이번에 불법 판결을 받은 후 먼저 판진 감옥에 감금됐다가 라오양시 모 감옥으로 이감됐는데, 구체적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쉬펑천의 건강 상태는 우려스럽다. 그는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 외부에서 쉬펑천 노인의 안위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라오닝 다렌시 66세 파룬궁수련자 리슈친(李秀芹)은 2025년 6월 11일 다렌 철도경찰에 납치돼 7월 18일 다렌 철도운수검찰원에서 불법 체포비준을 받았고, 다렌시 간징쯔구 검찰원으로 이송돼 불법 기소됐다. 11월 13일 간징쯔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이 열려 억울하게 징역 3년 2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상소 중이다.

11월 25일, 라오닝성 선양시 다둥구 공안, 검찰원, 법원 등 10여 명이 파룬궁수련자 저우펑란(周鳳蘭) 집에 들이닥쳐, 그녀에 대해 이른바 ‘재판’을 진행하고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했으며 벌금 2만 위안을 갈취했다. 그들은 저우펑란 노인이 뇌졸중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 후 그녀에게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감옥에 수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우평란은 일찍이 선베이신구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악인에게 모함을 당해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2024년 3월 20일, 저우평란은 후이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구류를 당했다가 ‘처분보류’로 귀가한 후,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과 법원에 모함당했다.

## 사악한 불법 기소에 직면했을 때의 한 가지 잘못된 인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형법’ 제300조 ‘사교(邪教)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는 중공 공안·검찰·법원 시스템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데 가장 주요하게 이용하는 죄명이 됐다. 2017년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가 ‘형법’ 제300조에 대해 제정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법 해석에서는 어떤 교(教)의 선전물을 ‘제작,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사실 자료 제작과 배포는 이 죄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행위는 국가의 어떤 법률·법규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중국 대법제자가 불법적인 기소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교류하고자 한다. 어떤 수련생들은 모순된 심리 상태에서 악랄한 ‘기소’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자신이 진상 자료의 제작자 혹은 전파자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진(眞)’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는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박해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에게 알려주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2. 불법 인원들이 대법 수련자의 선량을 남용해, ‘진(眞)을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수련생에게 자신이 진상 자료의 제작자, 전파자임을 인정하게 한다. 이는 그들의 ‘기소’에 협조해 소위 ‘증거’



를 날조하는 것으로 구세력의 안배다.

3.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기소하려면, 사법기관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죄명과 연관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상의 요구다.

4. 대법제자가 불법적인 기소에 직면해 기소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해체하는 것이다.

공안·검찰·법원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건 자체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해야 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수련한다” 또는 “수련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명혜망 교류 글: 《형사 박해의 시작으로부터 박해를 부정하는 한 가지 인식》, 《법률에 결부하여 진상을 알리다》 참고) 왜냐하면 소위 ‘법률 절차’는 심문(審問, 판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든 신문(訊問, 수사나 재판을 위해 정보를 캐내는 과정)이든 모두 박해의 한 고리이며, 모두 당신을 박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眞)’의 구현은 바로 사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법률적 근거와 절차성 문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협조하지 않는 근본적인 입장은 자신에게 책임지고 중생에게 책임지는 것이며, 중생이 사악에게 이용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며, 질문에 협조해 대답하는 것은 사실상 사악이 중생을 해치는 데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입장을 바로잡고, 사고를 명확히 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이어야 하지만, 사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심 없는 ‘진(眞)’이다.

명혜망에는 일찍이 이런 교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글에서 경찰이 수련생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압수된 진상 자료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어 범죄 증거로 삼도록 했는데, 그 수련생은 ‘이것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니, 우리는 본래 ‘진’을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연출에 협조해 구세력의 안배를 완성했다고 후회했다.

법률 절차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을 범죄자로 기소하려면 반드시 사법기관이 진실성, 합법성, 죄명과의 연관성을 갖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수련생은 마땅히 법에 의거해公安·검찰·법원 기관에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자신이 진상 자료 제작자, 전과자임을 기소하는公安·검찰·법원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사악은 대법제자를 모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죄명과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소위 ‘증거’를 짜 맞춘다. 이런 소위 증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서 나온다.

하나는 손으로 쓴 진상 자료에 대해 감정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로 제작된 진상 자료에 대해 감정을 하는 방식이다. 사악이 손으로 쓴 증거를 내놓기는 매우 쉽다. 필적 감정을 하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악은 수련생들이 배포한 진상 자료에 대해 지문 감정, DNA 감정을 진행했다. 또 다른 방식은 이러한 진상 자료가 어느 기계로 제작됐는지 증명할 상응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사악은 지금까지 이 기술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진상 자료가 이미 가택수색으로 압수됐는데, 또 경찰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진상 자료는 본래 범죄 증거가 아니다. 사악은 우리를 모함하고 비방하며 박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부님의 명시대로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사악에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公安·검찰·법원 사람들의 심문(불법)에 직면하든, 법정의 증거 제시 단계에 있든, 우리는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진상 자료가 내 기계에서 제작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자료 제작과 죄명이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구세력의 박해 의도를 깨뜨리고, 일체의 박해 형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몇 년 전, 나 자신도 사악의 납치에 직면했던 적이 있다. 나는 정념을 굳게 지키고 ‘협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나는 한마디도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경찰을 문밖에 막아 세우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문밖에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경찰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나는 이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이것이 심문입니까, 신문입니까, 아니면 소환입니까? 당신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곧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곧바로 나를 납치하려 망상하는 경찰을 감찰과에 고발했고, 납치는 순간 해체됐다. 지금까지 나는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명혜망에 이런 교류 글이 실렸던 것을 기억한다. 한 수련생에게 몇 년 전 지역사회 관리자가 전화해서 소위 파룬궁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다.

수련생이 “파룬궁 ‘3서’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관리자가 “당신은 파룬궁수련자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수련생이 대답했다. “제가 파룬궁수련자인지 아닌지도 파룬궁 ‘3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자는 멍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는 ‘진(眞)’을 말하니 반드시 무엇을 묻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련생이 한마디도 협조하지 않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어서 수련생이 주역이 돼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결국 ‘3서’ 서명 문제는 흐지부지됐고, 지금까지 그 수련생은 다시는 지역사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전에는 이 수련생이 지역사회에 의해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법률 방면의 대응 사고방식은 수련생들이 공의논단(公義論壇)에 자문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정리한 것으로 수련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허스(舍十)

## 진상 알리기 중 어투, 선한 마음과 도리가 마음을 변화시킨 사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중에 종종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련생들이 사존의 요구대로 ‘어투, 선한 마음과 도리’에 주의를 기울이자 예상치 못한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1. 한 남성이 매우 경멸하는 듯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당신 전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나에게 설명했지만 나는 믿지 않습니다.” 수련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이 많네요!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진상을 들어보지 못했나요? 신불(神佛)께서 당신을 버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복이 많다는 말에 태도가 누그러졌고, 수련생의 진상 알리기를 진지하게 들었으며 즐겁게 가명으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50여 세의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믿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진선인’을 믿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수련생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자유이니 굳이 당신이 ‘진선인’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크고 작은 일에 당신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선의로 대하기를 바라시죠? 당신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죠?” 남성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바라죠.”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진선인’은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낮은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선인’을 믿으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지 말할 것도 없이, 절반의 사람만 믿어도 대단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진선인’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도덕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지, ‘진선인’이 나쁘거나, ‘진선인’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해

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당이 부패시킨 사회가 좋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남성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게 맞네요. 저도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시다. 공산당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즐겁게 악당의 공청단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3. 한 은퇴한 기술자는 70여 세였습니다. 수련생이 그와 악당의 부패가 나라를 그르치고, 파룬궁이 전 세계적으로 홍전(洪傳)되며 진선인이 보편적인 가치가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종종 해외여행을 다녔기에 대법이 해외에서 큰 영향력이 있고 매우 환영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안색이 변하며 자신이 40여 년 당원이며,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련생이 웃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시 주석이 공산주의를 믿을까요?” 그는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저 탈퇴하겠습니다! 탈퇴할게요! 평생 X 같은 헛짓만 했네요.”

4. 어떤 남성의 누나는 파룬궁을 수련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그녀는 종종 15분 동안 발정념을 하러 갔습니다. 매형은 아마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처남인 그에게 누나를 설득해 수련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수련생이 처남에게 물었습니다. “밥상은 누가 차렸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누나가 차렸죠.” 이전에는 누나가 온몸에 병이 있어 힘든 일은 모두 매형이 도맡아 했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이 나아서 무슨 일이든 누나가 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누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으니, 매형분이 기다리고 싶으면 15분 기다리고, 기다리기 싫으면 먼저 드시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만약 누님이 수련하지 않아서 예전처럼 온몸

이 아파 고생하고 돈 쓰고, 매형분이 마음 쓰고 힘쓰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 손해가 더 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매형에게 얘기해서 절대 수련을 못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겠네요.” 그는 누나가 몇 번이나 삼퇴를 권했지만 모두 거절했었다고 말하며, 수련생에게 자신을 삼퇴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 몇몇 농민이 밭에서 옥수수 줄기를 베고 있을 때, 수련생이 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40여 세의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파룬궁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교사였는데 파룬궁을 수련해서 강제노동을 받았고, 해고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엄숙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파룬궁이 당신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련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파룬궁이 당신을 해고했습니까?”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박해하기 전에는 당신은 즐겁게 일하고 수련했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선인을 수련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계산을 잘못하지 마십시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의 농민 한 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수련생은 그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당부하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비록 삼퇴를 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농민은 심지어 수련생에게 빨리 가라고 일러주면서, 파출소에서 파룬궁을 만나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옛 수련생이 깨닫고 수련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진상을 알릴 때, 어투, 선한 마음과 도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이 이치에 맞고 상대방의 마음의 응어리를 건드리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할 때 정말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득이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610’ 두목의 변화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2015년 가을, 현지 청원사무실(信訪辦)에서 저에게 ‘610 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세뇌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세뇌반에서 대대장은 저에게 대법을 비방하는 TV를 보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보지 않고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저에게 소위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 사부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합법적인 공민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광명정대하니 당당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마음을 품는데, 당신들은 저에게 무엇을 보증하라는 것입니까? 기어이 저에게 쓰라고 한다면 저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대법을 모함하는 ‘3서’, ‘4서’ 등을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는 불법(佛法)을 배우고 있는데, 당신들이 저에게 이것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했을 때 네 차례의 대역병으로 로마 대제국이 멸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쓰라고 강요하자 저는 “당신들이 기어이 저에게 쓰라고 강요한다면 당신들의 이름을 서명하십시오. 역사의 대심판 때 당신들을 찾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대심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곧 올 것입니다. 기다려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그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전법륜》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 제가 ‘610’ 인원들에게 진상을 설명하고 있을 때, 저희 수련생 한 명이 또 납치돼 왔습니다. 막 도착한 수련생은 “우리는 집에서 착실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우리를 왜 데려왔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610’ 두목은 미친 듯이 그 여성 대법제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그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청원사무실의 서너 명에게 “빨리 가서 보세요, 그녀를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바로 그 방 안에서 그들은 저를 밤새도록 때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10’ 두목은 듣고 화가 나서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저의 이름을 부르며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시 그 말을 하면 널 남쪽 벽까지 발로 걷어차 버릴 것이다!”

저는 “당신이 저를 발로 걷어차 남쪽 벽에 부딪히게 해도, 제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불법(佛法)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의 가족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10’ 두목은 전화를 받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에 그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정말 업보입니까?” 저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응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610’ 두목은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전법륜》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서(寶書)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가져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정말입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정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에게 제5장 공법(신통가지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부좌를 하고 그에게 한번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보서 《전법륜》을 저에게 주면서 오후 내내 보라고 했습니다.

**“누구네 아이가 차에 치였습니까?”**

셋째 날 아침, 제 아들(수련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는데, 약 3리 정도 나갔을 때 큰 삼륜차에 치여 멀리 날아갔고, 삼륜차 운전자는 도망쳤습니다. 아들은 당시 심하게 부딪혔다고 느꼈습니다. 그

는 ‘사부님이 보호해 주시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산 청바지가 크게 찢어졌고 오토바이도 망가져 더는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토바이를 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손이 조금 까지기만 했어요.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아들을 친 사람이 그 마을 사람인 것을 보고 아들을 도와 찾아가려 했습니다. 아들은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동료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청원사무실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수리하세요.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니 그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이 사고당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사무실 사람들이 ‘610’ 두목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610’ 두목은 “누구네 아이가 차에 치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당신처럼 엄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돌보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가 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을 찾지도 못하게 하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 같은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당신 남편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정말 운이 없네요. 병원 검사 비용만 2, 3천 위안이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5, 6백 위안은 들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외출해서 사람을 치고 싶겠습니까?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운전자가 놀라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화나게 해 죽일 작정입니까? 당신 아들을 치고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놀랐을까 봐 걱정하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부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비꼬듯이 “그렇다면 당신은 남편과 달걀 한 상자라도 사서 그 사람을 찾아가 ‘어르신,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지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달걀 한 상자를 사서 그 사람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이때 한 여직원이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와, 언니, 저는 정말 살아 있는 신선을 만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610’ 두목은 실컷 욕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고, 저도 즉시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차를 몰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가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휴지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휴지를 가져다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이 생명은 구원받았구나.’ 그는 명백해진 그 면이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도 잊은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앞으로는 안전에 주의하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기술포럼 자료실의 ‘자료제작’ 페이지 업데이트

[명혜망] 기술포럼 자료실의 ‘자료제작’ 페이지는 자료 제작에 자주 쓰이는 소프트웨어, 강좌 및 명혜망에 발표된 일부 진상 자료를 한데 모았으며, 진상 자료 방면의 내용을 종합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므로 더욱 실용적이다. 의문이 있으면 포럼의 ‘인쇄기술’ 게시판에 로그인해 문의하고 교류할 수 있다. 포럼에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은 자료실에 계속 충실히 업데이트될 것이다.

이 웹페이지는 대폭 업데이트됐다. 업데이트된 게시판 내용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찾기 편리하고 일목요연하다. 더 많은 중국 수련자에게 스스로 인터넷 접속, 다운로드 및 진상 자료 제작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미·영·호주 등 15개국 연합성명을 읽고 든 생각

글/ 일언(一言)

[명혜망] 2025년 11월 21일, 미국, 영국, 호주 등 15개 유엔 회원국이 ‘중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합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을 발표해 중공(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기독교인, 티베트인, 파룬궁수련자 등 집단을 겨냥해 박해하는 것을 규탄했다. 성명은 또 각 회원국에 유의미한 책임 추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다음 서명국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주력하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포함된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는 임의적 구금, 강제노동, 불법적이거나 임의적인 대규모 감시, 그리고 종교와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 특히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기독교인, 티베트인, 파룬궁수련자 등은 겨냥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그 수단에는 아동을 기숙학교에 보내 가족과 분리하는 것, 고문, 문화유산 파괴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또 홍콩에 장기간 존재하는 시민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홍콩 밖에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현상금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지난번 중국 인권에 대한 연합성명은 2022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다른 한 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있었다. 이런 성명은 2019년부터 매년 중국 (특히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을 겨냥해 온 국제적 압박 패턴의 연속이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유사한 규모의 성명 발표가 없었기에 올해 다시 보게 돼 매우 기쁘다.

동시에 다소 우려도 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자유사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과연 중공의 파룬궁 박해야말로 중국 최대의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는지 모르겠다. 위구르족, 티베트인, 기독교인 집단, 인권 변호사에 대한 박해는 비록 난폭하고 잔인하며 피비린내 나지만, 전체 중국인에 대한 도덕적 납치와 육체적 소멸의 규모와 심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오직 26년 동안 지속됐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 정치운동만이 중공에게 민족, 신앙,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전체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상 통제를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멋대로 학대하고 해치게 했다.

중공은 1999년 파룬궁을 겨냥한 정책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를 특별히 강조했다. 여러분은 중공 치하의 매번 정치운동, 그리고 1999년 이후 민간에 폭로된 사례들(위구르족, 티베트인, 기독교인, 인권 수호 민중, 무고한 청소년, 양심 인사를 포함)을 대조해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모두 이 정책의 실시가 아닌가?

2025년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이 미국 수

도 워싱턴에서 연례 ‘중국 포럼’ 회의를 개최했다.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 무임소 대사(Ambassador at Large)이자 캔자스주 연방 상원의원, 캔자스 주지사를 역임한 샘 브라운백(Samuel Brownback)은 중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종교를 탄압하고 있으며, 파룬궁은 모든 종교 단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왜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가?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통제하려 하는데, 그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종종 정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중공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가장 끔찍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신앙인을 공격했다.

브라운백은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는 (중공)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건국 원칙이기에,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미국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종교의 자유) 이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에서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돼야 한다.”

“나는 우리가 파룬궁을 지지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백악관이 그분과 만나야 하며,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라운백은 또 지적했다. 중공은 줄곧 거짓말을 퍼뜨려 중국인을 속이고 종교 신앙 단체를 ‘외부 세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중국에서 진정한 외부 세력은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유럽 산업혁명 시기에 발전해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중국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



필자는 이 미국 상원의원이자 국제종교자유 무임소 대사의 인식이 매우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과 자유와 천부인권을 사랑하는 각국 인사가 이 점을 인식하고, 중공의 파룬궁[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박해와 배척이야말로 중국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인권 박해임을 인식해야만, 사람들(수많은 중국인 포함)이 중공의 공포, 폭력, 통제에서 벗어나 창세주께서 희망하시는 자유로운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호한 인식과 요행수를 바라는 심리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다소나마 중공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행위를 정상적인 표현으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중공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와 ‘호랑이를 키워 화를 자초한 것(養虎爲患)’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단체, 사회,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이치다.

## 왜 중국인은 납치됐다고 말하는가?

글/ 문심(問心), 정사(靜思)

[명혜망]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중공)이 모든 물질적 자원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사상을 박탈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자신의 인권, 사상, 언론, 신앙을 주재할 수 없고 진실한 소식을 얻지 못하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면, 이것이 바로 납치된 것이 아닌가?

오직 중공만이 당신의 인권을 박해할 수 있고, 당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죄악을 따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흑감옥(黑監獄)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회에서 당신 역시 피해자가 아닌가? 설령 당신에게 특권과 이익을 미끼로 주며 다른 사람을 박해하게 한다 해도, 역시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많은 중국인은 왜 자신이 (도덕과 신체의 이중) 납치됐다는 것을 모르는가?

중공의 역대 정치운동이 박해한 것은 모두 인권이었고, 인문정신을 갖춘 모든 지식 엘리트를 소멸하는 것이었다. 인문정신은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 관념으로, 사람에 대한 존엄, 가치 및 정신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 당신의 인문정신이 박탈당했을 때, 지식인의 자유의지, 독립적 사고, 정신적 탐구가 생존 공포로 대체됐을 때, 사람들이 중공의 주입에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워졌을 때, 정신은 이미 사망한 것이다.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설령 의식적으로 자신이 납치됐다는 것을 알더라도 스톡홀름 증후군, 혹은 공포 때문에 스스로 납치된 상태를 벗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중공이 무신론으로 중국인을 세뇌해 달성하려는 효과임을 모르는 것이다.

정신이 죽으면 육체적 소멸은 중공에 있어 필요에 따라 취하면 그만이다. 중국인을 살아있는 장기 은행, 혈액 은행으로 취급해 중공 권력자들이 생체 장기적출로 수명을 연장하고, 피를 뽑아 젊음을 되찾는 데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실례다.

한 국가가 인권 감옥으로 개조되면 그 안의 모든 사람도 벗어

날 수 없다. 운동으로 처벌받는 사람만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중공을 도와 정치운동을 일으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피해자다. 왜냐하면 당신도 인권과 존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중공은 단지 당신의 숨씨를 이용해 자신을 대신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나중에 당신의 생명으로 죄를 대신하게 할 뿐이다.

인권이 없으면 분명히 생명 안전과 재산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위험 속에서 생활한다는 뜻이다. 인권을 박해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인류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모르며, 많은 사람은 단지 자신이 납치됐다는 것만 알고 멸정지재(滅頂之災·홍수에 잠기는 듯한 큰 재앙)가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저 살아갈 뿐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중공이 어떻게 ‘중국인’이라는 인류 집단을 파멸시키는지 살펴보자.

## 1. 사상적으로 중국인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이 인류에게 부여한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류로서 상호 존중할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다. 이런 자유는 타인의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상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받는다. 오늘날 소련은 이미 해체됐지만 중공은 소련 공산당을 모방해 중국인을 세뇌한 지 이미 70여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반복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증오 길들이기를 강화한다! 당신에게 중공이 증오하는 것을 조건반사적으로 증오하게 하고, 중공을 수호하는 것을 ‘애국’으로 여기게 하며, ‘중공이 중국과 같은가’라는 대전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중공 치하의 중국에서는 당신이 자신의 독립된 사상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어떤 일, 어떤 사물, 어떤 이론, 어떤 학설, 어떤 인식, 어떤 신앙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고증, 분석, 대비, 감별, 토론하는 것을 불허한다. 외신의 독립 취재를 불허하고,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언론 발표를 불허한다(중공에 의해 폐쇄된 웹사이트는 ‘다크웹’이라 불린다). 모든 것은 당(黨)에 의해 옳고 그름이 확정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에 의해 타격, 처벌, 징계, 실종, 육체적 소멸을 당하게 된다.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인은 도대체 ‘해방’된 것인가, 아니면 ‘납치’된 것인가? 일어선 것인가, 아니면 쓰러진 것인가?

중공은 중국인에 대해 진반(鎮反), 토지개혁, 삼반(三反), 오반(五反), 공상개조, 회도문(會道門) 탄압, 종교 탄압, 대기근, 사청(四清), 문화대혁명, 6·4 학살(천안문 사태), 파룬궁 박해 등을 저질렀다. 각종 인권을 박탈하고 사상을 유린하는 박해 운동 속에서, 그 누구의 질의도 불허하는 각종 조건반사적 정론(定論)을 만들어내 중국인을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데 사용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당의 단점, 잘못, 범죄 증거를 언급하면 반드시 즉시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야 한다. 반당(反黨), 정치 참여, 애국하지 않음.

- 지주, 부농, 자본가를 언급하면 반드시 즉시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야 한다. 우리 빈하중농(貧下中農)을 괴롭히고 억압한 큰 악당.

- 국민당을 언급하면 반드시 즉시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야 한다. 반동파, 한간(漢奸·매국노), 주구(走狗·앞잡이), 항일하지 않

음.

- 지식인을 언급하면 반드시 즉시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야 한다. 반동 사상의 취로구(臭老九·지식인을 비하하는 말).
- 공산당을 언급하면 반드시 즉시 다음과 같이 찬양해야 한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르다.

이것들은 모두 중공(이 공산주의 악마의 현 세계 총대표)이 중국인에 대해 자행하는 사상 길들이기, 노예화, 그리고 소멸이다.

중공은 또 장쩌민(江澤氏)이 조작한 ‘천안문 분신자살’을 파룬궁에 뒤집어씌우고, 또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학교 교과서에 넣어 학생들을 속였다.

주권이 중공에 이양된 홍콩은, 중공에 의해 더욱 거리낌 없이 ‘홍콩 독립’ 분자 제거를 이용해 한 차례 또 한 차례 ‘해방’됐고, 한때 민주주의, 자유, 경제가 번영했던 홍콩을 침묵하고 진상을 금지하며 오직 거짓말과 중공만이 횡행할 수 있는 인권 감옥으로 ‘해방’되었다.

물론 중공은 이미 민주주의를 실현한 대만 역시 중공의 인권 감옥으로 개조해 중공이 제멋대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대만 독립’, ‘해방’, ‘통일’, 이런 명사들은 촉매제로 간주돼 중국인의 민족 정서를 선동하고 중국인이 민주와 자유를 견지하는 대만 시민을 증오하고 멸시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중공이 중국인에게 주입한 각종 ‘표준답안’은 검증을 견딜 수 있는가?

- 무엇이 정치 참여이고 반당이며 애국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큰 악당인가?

- 누가 한간, 주구, 매국노이고 항일하지 않았는가?
- 누가 사상이 가장 반동적인가?
- 위대, 영광, 올바른 것은 어디에 있는가?
- ‘천안문 분신자살’은 누가 조작했는가?
- 도대체 누가 조국을 분열시키고 민족을 배반했는가?
- ‘중공’이 ‘중국’과 같은가?
- 8천만 중국인을 살해한 망나니는 누구인가?
- 누가 어떤 사람이든 중국에서 어떤 일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 고증, 분석, 감별, 토론, 자유 언론 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불허하는가?

바뀌 말하면, 누가 모든 중국인을 파블로프의 실험견으로 만들었는가?!

‘문혁’ 시기 당에 의해 ‘양성’된 붉은 혁명 사업 후계자 중 군관(軍管) 간부 17명과 경찰 793명이 ‘다짜창(打砸搶·때리고 부수고 약탈함) 분자’라는 죄명으로 윈난(雲南)으로 끌려가 당에 의해 비밀리에 총살당했다. 순직으로 처리됐지만 붉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전 국민이 생체 장기적출과 채혈 자원으로 간주되는 것 외에도, 오늘날 당이 부패 치국으로 ‘양성’한 ‘영웅’, ‘모범’, ‘붉은 기수(紅旗手)’가 또 당에 의해 숙청돼 감옥에 들어갔다. 이들도 모두 당이 중국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중국인을 가축, 주구, 사유재산으로 여겨 조성한 악과(惡果)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공산당은 ‘사유제 소멸’을 표방하지 않았는

가? 왜 소멸하고 소멸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처자식과 재산을 공유(共)하여 자신의 사유물로 만들었는가? 중국인 명의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를 가진 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최저선 없이 남자를 짓밟고 여자를 차지하며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는 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은 중국인이 모두 중공의 대사기극, 대마굴(大魔窟)에 갇혔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가?

오늘날 중국에서 비록 대다수 사람은 자기 사상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당의 조건반사적 세뇌에 굳어졌다.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리로 문제를 분석하고 감별할 수 없고, 이미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귀로 자유로운 정보를 들을 수 없게 됐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적절하다. 사상의 퇴화와 경직은 비애다.

과거에 ‘조건반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으나, 현재는 진상 경로가 많아져 이런 사람이 줄고 있다. 선념(善念)을 유지하고 감히 진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운아이며, 또한 중공이 멸망할 때 생존자가 될 것이다.

## 2. 인권 면에서 중국인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중공은 인민의 모든 물질적 자원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 선전 도구를 독점해 인권 박해의 운동 방향을 조종했다. 자유롭게 언론을 발표하는 공간은 가상이고 허상이다. 당이 일단 누구를 ‘적’(피해자)으로 규정하면 죄명이 없으면 죄명을 만들고, 심지어 죄명을 만들 필요도 없이 사람을 실종시킬 수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전 국민의 증오와 공격을 선동하고 조

작해, 결백한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오염시키고 고상한 사람을 저급한 사람으로 모독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와 존엄도 박탈한다. 당이 증오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당신은 반대해야 하고 그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당에 아직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빠도 당신은 옹호해야 하고, 단점과 잘못, 죄악을 비평하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며, 당의 이익은 생명보다 높고 천부인권보다 높다!

역대 인권을 박해한 정치운동은 모두 공산당이 주모자였고, 민중을 유혹해 악을 저지르게 했지만,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은 공산당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윗선의 뜻은 좋은데 아랫사람이 망쳤다”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중공이 중국인을 장기적으로 세뇌하고 길들여 조성한 잘못된 인식으로, 중국인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인권 박해 자체가 바로 신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어떤 운동을 서민이 일으켰는가?

중공은 1949년부터 2025년인 현재까지, 토지개혁, 삼반, 오반, 사청, 문혁, 6·4, 파룬궁 박해에 이르기까지,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고, 때려죽여도 살인이 아니며, 때려죽이면 자살로 치고, 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했다. 중공이 설치한 전향반, 노동수용소, 감옥 등 인권을 박해하는 슈퍼 수용소가 중국 각지에 널려 있다. 사용하는 고문은 100여 가지로 폭행, 매달기, 독방 감금, 구속복, 독극물 주사, 대소변 주입, 강간, 강제 낙태 등이다. 가택 침입 약탈, 임의 납치, 무기한 감금, 고문 학대, 생체 장기적출에 이르기까지, 이 붉은 파시즘의



잔인함은 흑백 두 파시즘에 비해 어떠한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사악한 인권 범죄는 바로 파룬궁 박해이며, 게다가 국가 정부 행위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멈춘 적이 없으며 계속 은폐하고 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25년 9월 12일까지 중공의 박해로 사망해 신원이 확인된 파룬궁수련자는 5260명이다. 이는 이름을 확인할 수 없고, 실종되고, 생체 장기적출을 당한 최소 수십만 명의 피해자와, 기만당하고 기본 권익을 박탈당한 1억 명 이상의 파룬궁수련자 배우자, 자녀, 친척, 동창, 동료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인류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피비린내 나는 대량의 범죄 사실로 인해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이 지구상에 전례 없는 악’으로 불린다.

쥘즈하이(左智海)라는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 모든 중국인은 사실 모두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인이 직면한 이런 위험은 깡패나 조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공의 이 불법 체계에서 옵니다. 중공의 이 사법 체계하에서 그 지도 간부와 관리들은 임의로 수종의 권력을 동원할 수 있고,公安, 검찰원, 법원을 쉽게 동원해 어떤 결백한 중국인에게도 죄를 씌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살인했다고 하면 당신은 살인범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강간으로 고소하면 당신은 강간범 죄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공무를 방해했다, 폭력으로 법 집행에 저항했다, 사회질서를 교란했다고 말하면 당신은 공무방해죄, 고의상해죄, 심혼자사죄(尋釁滋事罪·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죄)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어떤 증거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증인, 증언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당신이 기억해내서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는 범죄를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은 인민에 대해 마음대로 가택 침입 약탈, 임의 납치, 무기한 감금, 고문 학대, 생체 장기적출을 할 수 있기에 중국인은 늘 위험 속에서 생활한다(당원 간부,公安·검찰·법원·사법부 요원 포함). 어느 날 집이나 일터에서 당에 끌려가, 당에 의해 목매 자살당하고 당에 의해 심근경색 등을 당할지 모른다. 앞발은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뒷발은 붉은 함정에 빠지니 가련하지 않은가? 민주 자유 국가는 첨단 기술을 민생에 쓰지만, 중공 독재는 첨단 기술을 민권 통제에 사용해 빅데이터 감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다. 이것이 중공이 중국인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아 조성한 두 번째 악과다!

### 3. 생명 면에서 중국인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총알받이(炮灰)에서 ‘인광(人礦·인간 광물)’까지. 항일전쟁 승리 후 중공은 앞장서서 내전을 일으키고 총알받이 전술로 중국인을 각종 형식으로 한 무리 또 한 무리 죽게 했다. 발판이 되고 총알을 막고 희생양이 되게 했으며, 안전한 곳에 숨어 특권을 누리는 당은 인민의 보루, 강철 장성, 동장철벽(銅牆鐵壁)으로 칭했다.

중공이 일으킨 화이하이(淮海) 전투는 정부군 1명이 죽을 때 중공군 5명이 죽는 것으로 중공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중공 ‘인육 전략과 인육 전술’의 승리다. 화이하이 전투뿐만 아니라 랴오선(遼沈) 전투에서도 중공은 똑같이 이 전술을 운용했다.

대만 입법원장 량쭈룽(梁肅戎)이 생전에 쓴 ‘대시대비(大是大)

非)-량쭈룽 회고록’은 쓰핑(四平) 전투를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이 썼다. “민국 37년(1948년) 3월, 공산군은 세 차례 쓰핑을 공격했는데 총 5차례의 공세가 있었다. 이번에 공산군은 인해전술을 발동해 평민들을 대오로 조직해 한 무리 한 무리 앞으로 몰았는데, 평민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했다. 국군도 차마 더 쏘지 못했고 공산군은 시체를 밟고 쓰핑으로 쳐들어왔다. 최후의 쓰핑 함락일은 3월 12일이라고도 하고 3월 15일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음력 2월 2일 ‘용이 머리를 드는 날(龍抬頭)’ 당일로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중공 군대가 쓰핑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량의 무고한 평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전술’, 즉 평민을 대오 앞에 견게 한 것에 의지했다. 국민당 군인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더는 차마 평민을 향해 발포할 수 없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노작가 마썸(馬森)은 산문 ‘나의 세 차례 해방’[대만 2005년 1월호 ‘인각(印刻)’ 참조]에서 또한 이렇게 묘사했다. “그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위춘(玉春) 사촌 형의 묘사였는데, 해방군이 성을 공격할 때 군인 앞을 걷던 것은 모두 새카만 맨손의 노약 농민들이어서, 성을 지키던 위군(僞軍)이 차마 발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해방군이 쉽게 성을 기어올랐다는 것이다.”

신하오넨(辛灝年)은 2005년 호주 순회 강연 중 한 지난(濟南) 군구 중공 퇴역 장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야기는 중공이 산둥 명량구(孟良崗) 전역에서 어떻게 국민당 에이스 사단인 74사단을 이겼는지 폭로했다. 공산군은 벌거벗은 지주 며느리와 딸들을 총알받이 방패로 삼았다!

당시 중공 군대는 명량구 산비탈을 향해 1차 돌격을 감행했다. 국민당 병사들은 총알을 쏜 후 깜짝 놀랐는데, 맨 앞이 뜻밖에도 노인들(지주·부농 반혁명분자)이었기 때문이다. 국군은 즉시 사격을 중지했다. 뒤이어 중공은 2차 돌격을 감행했는데, 이번에 선봉에 선 것은 뜻밖에도 아이들(지주·부농 자녀)이었다. 국군은 부득이 또 총을 내려놓았고 중공 군대는 기회를 틈타 올라왔으나 국군에게 패배했다. 3차로 앞에 돌격한 것은 하얀 이불보였는데 국군이 막 발포하려 할 때 하얀 이불보가 사라지고 온통 알몸의 청년 부녀자들(지주·부농의 딸과 며느리들)이었다. 국군은 총을 던져버렸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전투에서 항전 영웅 사단장 장링푸(張靈甫)는 자살로 순국했다.

국민당 장군 후롄(胡璉) 역시 친구 허자화(何家驊)와 중공의 ‘인해전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그해 나는 이멍(沂蒙) 산간 지역에서 공산군과 싸울 때 그들이 평민에게 수류탄 두 개를 들려 돌격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수비군이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죽는 것이 다 평민인 것을 보고 자연히 차마 계속 쏠 수 없었고, 이때 공산군 정규군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인해전술을 알지만 우리가 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패배하겠습니다.”

중공 군대의 악행에 대해 1946년 4월 16일 상하이 ‘대공보(大公報)’는 ‘수치스러운 창춘(長春) 전투’라는 사설을 발표했는데, 저자는 저명한 언론인이자 대공보 주필 왕원성(王雲生)이었다. 그는 글에서 중공 군대를 통렬히 비난했다. “공격 전술은 항상 맨손의 평민을 선봉으로 삼고 기관총과 박격포로 뒤에서 싸움을 독려한다… 맨손의 선봉대가 무더기로 쓰러져 상대방의 화력

을 소모한 후에야 정식으로 작전한다…… 실로 천리를 거스르는 정도에 이르러 인육전을 구사하니, 설령 이긴들 무슨 체면이 있겠는가? 설마 정말 전국 동포 2억을 희생시켜 승부를 겨루려 하는가? 제발 빨리 마음을 돌려 도살용 칼을 내려놓으라!”

‘대공보’의 글은 우리에게 그해 창춘 포위전 중 중공의 비열함을 다시 알게 해준다. 1948년 5월 지린성 창춘시에 주둔하던 국민당 60군 10만 명은 10만 중공군의 전면 포위를 당해 수비군의 식량과 연료가 극도로 부족해졌다. 외부 지원이 도달할 수 없고 군량과 마초가 결핍된 상황에서, 150여 일을 버틴 국민당 군대는 부득이 투항했고 중공 군대가 창춘을 점령했다.

‘대공보’가 창춘 전투가 수치스럽다고 말한 것은 중공 군대가 극히 비인도적인 수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즉 포위 기간에 주민한 사람도 성을 나가는 것을 불허했다. 다시 말해 창춘 성내의 주민이 중공 군대가 국민당 군대를 협박하는 인질이 됐고, 성을 나가 살길을 도모하려는 주민은 전부 차단당했다. 이는 포위 기간에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나무껍질, 나뭇잎 등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먹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했으며,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게 했다. 전해지는 바로는 창춘의 전체 주민 중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인민전쟁’의 진정한 함의는 “중국 인민이 혈육의 몸으로 중공을 위해 총알받이가 되고, 중공을 위해 강산을 얻어주며, 자신을 중공의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전쟁”이다.

‘9.3 열병식’의 짧은 시진핑-푸틴 대화는 장기(臟器) 진상을 공개적으로 실증했다. 즉 중공 고위관리는 장기 특공(特供·특별공급)을 누린다는 것이다. 동시에 ‘장기 외교’, ‘장기 뇌물’도 있어

당을 위해 국제 사무에서 이익을 얻고, 장기이식 기술은 과시하는 자본이 되며 국민의 장기도 공물, 선물이 된다.

평화 시기에 인민을 인광(人礦)으로 취급하는데, 장시(江西) 학생 후신위(胡鑫宇)가 그중 한 예다. 또 뤼쉬이위(羅帥宇), 위멍룽(於朦朧)의 죽음이 있고, 최근 몇 년간 중국 청소년이 대량 실종됐는데 진상은 중공에 의해 극력 은폐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진상이 일단 공개되면 중국인은 즉시 중공이 중국인을 전혀 인류로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선도 없이 지극히 사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법률 사기와 초국가적 탄압

중공이 파룬궁을 타격해 박해하는 것은 인권이다. 파룬궁은 우주 특성 진선인(眞·善·忍) 최고 표준에 근거해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초월한 좋은 사람이 되며, 이타적이고 사심이 없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해, 최종적으로 신체 건강에 도달한다. 따라서 파룬궁의 고덕(高德) 행위는 세계 정계 인사와 민중의 보편적인 존중과 환영을 받는다! 파룬궁수련자가 법공부, 연공, 진상 알리기, 자료 배포 등을 하는 것은 모두 인권 행위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어떤 법적 근거와 도덕적 이유도 없다.

‘법률 실시 파괴’라는 명목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체포, 감금하는 것은 사실상 중공이 법률의 이름을 빌려 법률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기 행위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公安·검찰·법원은 중공 인권 박해 범죄의 도구가 됐고 미래를 위해 준비된 희생양이 됐다.

전 미 국무부 종교자유 대사 브라운백은 ‘차이나 포럼(China Forum)’ 연설에서 “중공은 신앙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중공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며 위반한 기본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법 위반: 반인류죄, 고문죄, 집단학살죄
- (2) ‘헌법’ 제36조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 (3) ‘헌법’ 제35조 위반: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 (4) ‘형법’ 위반
  - 고의상해죄
  - 모욕죄, 비방죄
  - ‘형법’ 245조 ‘불법 수색죄, 불법 주거침입죄’ 위반
  - 피감호자 학대죄
  - 국민 종교 신앙 자유 불법 박탈죄
  - 직권남용죄
- (5) ‘감옥법’ 위반
- (6) ‘감찰법’, ‘공무원법’, ‘경찰법’ 등 법률 조례 위반……

## 5.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미국은 중국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중공에 최혜국 대우를 해줬다. 20여 년간 중공을 살찌웠고 중국 인민도 부유하게 했다. 이

에 대해 중공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미국인을 놀렸다고 여기고,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판다 외교에서 전면적, 공개적으로 미국을 교란하는 것으로 전환해 세계 패권을 칭하려 했다.

미국인이 중국 시장의 보너스를 탐하자, 중공은 최대 기량인 ‘지름길 추월’을 꺼낼 기회를 얻었다. 국민당을 대하듯 미국을 대해 붉은 침투, 문화 침투, 정부 관리 미녀 뇌물, 첨단기술 요원 경제 뇌물, 선전 분화 와해, 기술 도둑질, 기술 이전 강요 등 수단으로 미국을 대했다. 중공은 또 미국과 초한전(超限戰)을 벌였는데 예를 들어 생물 기술, 희토류 통제전 등이다.

비록 중공의 최종 목적은 세계를 통치해 세계를 중공국(中共國) 같은 무법천지 흑사회, 인권 대감옥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40여 년 후 그 많은 흑막이 마침내 미국 싱크탱크에 의해 폭로돼 수많은 미국 전통 인사를 분노하게 했다. 동시에 많은 국가가 수년간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 온 것처럼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은 중공을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

## 맺음말: 전 세계가 중공의 죄악을 청산하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

미국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7명이 상원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 대열에 합류했다. 텍사스주 고위 의원 10명이 제1 발의자인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파룬궁 보호법’을 지지했다.

세계 각국 정계 인사와 국민들이 파룬궁수련자의 박해를 반대하고 캐나다, 호주, 독일 정계 인사와 100여 개국 국민이 서명하



고 나서서, 중공 청산을 위해 반마(反魔) 역량을 형성했으니 전 인류가 공산당에 반대하고 있다.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다. 중공은 더더욱 중화민족을 대표할 수 없다. 공산당이라는 이 붉은 악룡(惡龍)은 반천(反天), 반지(反地), 반인류, 반우주적인 악령으로 전 우주의 생명이 모두 그것을 제거하고 있다.

각 왕조가 멸망할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흑백이 전도되고 선량을 타격하며 악을 장려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며 욕망과 색정이 만연해 사람마다 험악함에 직면하는 것이다. 사람이 계속 나뻐를 견지하고 발양해 나간다면 사람은 하늘에 의해 도태될 것이며 사회와 국가도 철저히 끝장날 것이다! 오늘날 중공은 또 중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더 나쁘고 더 썩게 만들었으니 왕조가 바뀔 시각이 아직 먼 것인가? 사람은 용서해도 하늘은 용서하지 않는다.

중공과 함께 침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미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삼퇴)해 자신의 ‘헌신’ 서약을 폐기했다. 이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들이다. 중공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해 더는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되지 않아야 진정한 중화의 아들딸이 될 수 있고, 붉은 마귀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순장되지 않아야 광명한 미래가 있다.



▲ 2월 4일부터 7일까지, 뉴질랜드 파룬궁 단체는 4일 연속 7개 성탄 퍼레이드 행사에 참가해 북섬의 여러 도시와 지역사회에 밝은 색채와 성탄절의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관중은 매우 열정적으로 잇달아 대열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수련자들이 견지하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보편적 가치에 찬사를 보낸다고 표했다. 뉴질랜드 해밀턴 주류 언론 '와이카토 타임스(Waikato Times)'도 이번 성대한 퍼레이드 행사를 보도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56만 322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